

## 한국 전통무예로서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 탐색

An investigation of cultural identity of taekwondo as a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

안정덕, 송강영

한국과학영재학교, 동서대학교

Jeung-Dek Ahan, Kang-Young Song

Korea Science Academy\*, DongSeo Univ.

### 요약

본 연구는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우선 태권도 발생에 대한 역사적 기원을 최홍희 중심설, 도장중심설, 가라테 유입설, 전통무예 계승설의 관점에서 조명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태권도에 내재한 한국 전통 무예로서의 정체성을 탁석산(2000)이 제시한 정체성 판단의 3가지 기준인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태권도는 최홍희와 일제시대의 문화적 단절기에 유입된 가라테, 그리고 최초의 기간도장 지도자와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가 융합되어 격동의 혼란기와 문화적 재생산 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둘째, 태권도는 발기술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맨손 무예 몸짓을 본질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손기술 중심의 일본 가라테나 중국의 우수와 확연히 구별된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다. 게다가 호구나, 샷보대, 헤드기어 등에는 태극문양과 전통적 오방색상을 잘 조화시켰으며, 모든 용어를 순 우리말로 바꾼 것은 한국적 토착화의 결정체이다. 따라서 태권도는 한국 전통무예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내포한 가장 세계화된 한국의 문화유산이며,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해 가는 노력과 함께 글로벌 무도 스포츠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Abstract

This research, to find the cultural identity of taekwondo, presents the historical origin of taekwondo in lights of Choi-centric theory, kwan-centric theory, karate inflow theory, and successive traditional martial arts theory. Then it investigates taekwondo's inner identity as a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 according to presence, popularity, and independence, three factors of identity suggested by Tak, S. S.(2000). As a result, it reached these conclusions: First, taekwondo was formed after going through fusion of Hong Hi Choi, karate income in period of cultural severance during Japanese occupation, the first kwan leaders and Korean traditional martial arts, process of disorder and cultural reproduction. Second, taekwondo has essentially inherited and developed Korean barehanded martial arts' movements that lay stress on foot skills, and this distinguishes it from hand-skill-based Japan's karate and China's Wushu. Furthermore, trunk/groin protectors and headgears are blended remarkably with taeguk patterns and traditional Colors of Five Directions. All terms rendered into pure Korean words shows the essence of Korean localization. It is therefore concluded that Koreans should, along with trying to overcome exclusive nationalism as a country of origin, build a new paradigm of establishing an identity as a global martial art sport.

### I. 서론

전통적으로 동양 무예는 그네뛰기, 널뛰기, 축국 등과 같은 유희로서의 신체활동과 구분되어 국가와 개인의 생존을 위한 공격과 방어 기술이면서도 심신 수양의 기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대문명의 발달은 모든 영역을 상업화하고 전문화 시켰고, 동양 무예도 전통적인 관념에 변화를 가져와 다른 스포츠와 같이 흥행을 위한 경기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유도와 검도, 가라테와 같은 일본 무술을 중심으로 시작된 무예의 스포츠화 현상은 한국의 태권도, 태국의 무에타이, 중국의 우수 등

으로 확산되었고, 이 중에서도 태권도는 현재 가장 성공한 무도 스포츠로 성장하게 되었다. 국기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로 세계 184개국이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만큼 태권도는 지금 지구촌 전역에서 활발히 수행되는 스포츠가 되었다. 특히 태권도는 스포츠 경기가 되면서 국제화되어 한국적인 것으로 토착화되었고, 더 나아가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중주국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끊임없이 제기 되는 논란거

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곧 태권도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즉, 현대 태권도의 형성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하에서 36년간 문화적 단절을 겪는 동안 일본 가라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러한 연유에서 강경화(2005, p. 4)[1]는 태권도가 역사의 단절 속에서 태동한 근대무예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예이지만, 한국 전통 무예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엄격한 견해를 밝혔다. 김용욱(1990, p. 29)[7]도 태권도란 구태여 그 기원을 가지고 말한다면 분명히 조선 고유의 것이 아니나, 한국인들에 의한 창조적 변형과정을 거쳤으며, 세계에서 가장 보편화되고 인정받고 있는 무도 스포츠라는 현실에 직시하여 한국고유의 무술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태권도에 대한 철학적 재구성의 틀을 제시하였다. 이들 주장은 일제시대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배운 가라테를 국내로 가져 들어와 '당수도', '공수도', '권법'이라는 이름으로 도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태권도로 개칭된 기원을 인정하고, 현대 태권도는 우리의 것으로 재창조된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민족마다 그 민족의 생존을 위해 맨손무예가 존재 하였듯이 우리 민족도 고구려의 '선배' 신라의 '화랑도' 고려의 '수박' 조선의 '택견'이 있었고, 이러한 맨손무예가 오늘날의 태권도로 계승 발전해 온 것으로 본다. 단지 일제시대의 문화말살 정책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맨손 무예가 일본의 가라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명맥을 굳건히 이어온 한국의 전통무예라고 제시하고 있다(김경지, 1999[4]; 김주훈·김길평, 2003[8]; 김길평, 최근기, 2003[5]; 국기원, 1997 [2,2006[3]; 대한태권도협회, 1972)[9]. 위의 두 가지 주장에는 태권도가 한국의 무예이자 자랑스러운 문화라는 사실에는 공통적으로 공감하나 그 시작과 도입과정에 대해선 인식 차이가 크다. 더욱이 정경화(2002, p. 65)[14]는 고구려의 고분 벽화와 신라의 금강역사상 등은 택견의 공격 방어 자세와 흡사하며 택견의 동작 형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태권도계가 한국 고유의 전통 무술을 계승하였다는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억지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이 침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의 가라테도 중국 당나라 권법이 오키나와로 전해져 당수(唐手)라는 맨손 무술로 전해져 오다 1879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통합되고, 1922년 근대 가라테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후나고시 기원이 문부성 주재의 고무도 박람회(古武道博覽會)에 첫 선을 보인 이후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1939년에 와서야 '송도관'이라는 세계최초의 가라테 도장이 후나고시에 의하여 설립되기에 이른 가라테도 태권도라는 명칭이 생겨나기 불과 16년 전에 정식도장이 운영되었고, 중국 남방 권법이 들어와 오키나와 고유의 무술 형태로 변화되어 공수도로 개명 발전하는 문화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라테의 발생지로 알려져 있는 오키나와는 타이완의 남쪽

섬으로부터 약 300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북쪽 일본 본토로부터 300마일, 동아시아 대륙으로부터는 약400마일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Nagamine, 1976). 이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오키나와는 과거에 중국, 일본, 한반도(Korean Peninsula)로부터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받았으며, 남동아시아로부터는 약간의 영향을 받았다(Kerr, 1965[23]; Lebra, 1966[25]; Robinson, 1969)[27]. 이처럼 오키나와의 문화는 일본 본토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남방문화권의 특이한 독립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엄밀하게 말하면 가라테는 일본의 무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김용욱, 1990, p. 101)[7]. 게다가 1922년 이전에는 가라테가 전혀 일본에 알려지지 않았고, 그 당시 일본에서 무도라 함은 유도와 검도를 지칭하였다. 유도와 검도는 근대 일본의 군병 양성을 위해 훈련과목으로 수련되어져 왔으나 가라테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었으며, 2차 대전 패배 후 미군정이 유도와 검도의 수련 활동을 금지한 반면, 가라테는 해로움이 없는 신체활동의 춤(dance)이거나 단순한 운동(mere exercise)로 인식하여 금지하지 않았다(Draeger & Smith, 1969[21]; Nagamine, 1976)[26]. 이러한 사실은 가라테가 유도와 검도에 비해 일본인의 의식에서 중심 무도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 가라테 동작에 대한 상세하고 특별한 기록이 없었으며, 선임자의 말(orally)과 육체적 연습(corporeal practice)에 의해 전수되는 비체계적인 형태로 이어져 왔다(Haines, 1995)[22]. Kevin(2004)[24]은 그 당시 가라테 역사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록물이 없으므로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라테의 역사는 명료함보다는 모호함이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 그 기원에 대해서는 보다 비판적이고 주의깊게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문화를 기원을 가지고 따진다면 가라테도 일본 고유의 전통무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아시아의 문화의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의 문화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날 가라테를 중국의 문화유산이라고 하지 않고, 태권도를 일본의 문화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상쾌한 자부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철학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정체성의 문제는 형이상학(metaphysics)의 가장 오래된 난제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적 유산이 파괴되었다가 그대로 재건된다면, 그것은 동일한 문화인가? 만일 우리가 외래의 문화를 빌려와서, 우리 고유의 것으로 승화시켰다면, 그것은 우리 문화인가? '우리 고유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철학적 질문에 답하면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루는 책으로는 최준식(1997)[16]과, 탁석산(2000)[19]이 있다. 특히 탁석산(2000,

p103-117)은 정체성을 크게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의 3가지 기준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정체성의 기준은 과거의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현재성), 대다수가 선호하는 문화만이 정체성을 가지며(대중성), 문화의 구성원들이 대체주체적으로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주체성) 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 우선 태권도의 역사적 기원을 객관적 시각에서 추적해 보고, 태권도에 내재되어 있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 현상학적 측면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대 태권도의 형성 과정에 대해 역사적으로 가장 타당한 4가지 관점을 가지고 거시적이면서 통합적으로 탐색하여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태권도의 역사와 정체성의 부재로 야기되는 그간의 문제점을 발전적인 방향에서 재정립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본론

### 1. 태권도 기원에 대한 4가지 관점

#### 가. 최홍희 중심설

최홍희 중심설이란 국제 태권도 연맹(ITF) 전 회장인 최홍희(崔泓熙)씨가 태권도를 홀로 창시하였다는 주장이다. 이는 주로 최홍희 자신과 국제 태권도 연맹이 내세우는 주장이나,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기원 등 다른 단체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최홍희(2000, p. 343)[18]는 자신의 자서전인 『태권도와 나』에서 우리 민족의 독특한 무도를 만들겠다는 뜻을 품고 1946년 3월부터 갖은 난관을 무릅쓰고 9년 동안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55년 현대적 무도의 기초를 완성하였으며, 1955년 4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라는 휘호를 한자로 받아냈다고 하였다. 그는 명칭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당시 국내 도처에서 무도를 놓고 당수, 공수, 권법 등 제각기 마음대로의 명칭으로 혼란과 과벌을 형성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며, 고려 역사에 나타나는 '택견'과 발음이 비슷하여 역사적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태권'을 제시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태권이라는 용어가 우리 역사상에 최초로 나타나게 된 시점은 이 때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태권이라는 무도 명칭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홍희는 태권이라는 명칭을 어디서 창안하였을까? 보병 29사단 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최홍희는 강군 육성책의 하나로 자신의 모든 부대원들에게 당수도를 익히도록 했는데, 1954년 9월 1군단 창설 기념식 날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자신의 부대자랑거리인 당수도 시범을 보이게 된다. 이것을 보고 대단한 흥미를 느낀 대통령은 "저것이 우리

나라에 옛날부터 있던 택견<sup>3</sup>이야, 택견이 좋아, 이것을 전군에 가르쳐야 해, 서양 사람들은 위동이만 쓰는데 발로 차면 빙그르 주저앉을 게 아닌가" 라는 인상 깊은 격려를 하게 된다. 이 일은 발(태:踏)과 주먹(권:拳)을 뜻하고 발음도 비슷한 태권이라는 명칭을 구안하게 된다.

이처럼 태권도라는 명칭이 최홍희로부터 창안되고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무도 명칭을 창안하였다고 하여 태권도의 창시자로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홍희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태권도의 기초 기술과 형식은 최홍희 자신을 중심으로 완성되고 전수된 것으로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최홍희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군내에서 무도를 보급하기 이전인 1944~46년도에 이미 이원국, 전상섭, 황기, 윤병인, 노병직 등과 같은 무도인들이 도장을 설립하여 각자의 기술 체계로 무도인을 육성하고 있었다. 둘째, 최홍희는 주로 가라테(당수도)를 수련하였다. 어린 시절 서예 스승인 한일동으로부터 초보적인 택견 기술을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으나(최홍희, 2000, p. 36), 증거가 매우 빈약하다. 또한 최홍희(2000, p. 347) 자신도 당수 또는 공수라는 말을 쓰며 가르치다 태권도라 부르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셋째, 태권도라는 공식 명칭의 사용에 대한 역사적 자료나 증거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최홍희는 1955년 4월 11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라는 휘호를 한자로 받아냈다고 했으나 그 친필 휘호에 대한 증거(사진, 보관행적, 휘호날자 등)는 어디에도 없고, 봤다는 사람도 없으며, 최홍희는 친필을 보관하다 분실하였다고 할 뿐이다.

#### 나. 도장(館) 중심 설

도장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 창안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현대 태권도의 기원이 일본과 중국 등에서 무예를 배우고 온 지식인이 세계 2차 대전에서의 일본패망과 우리민족의 해방을 전후로(1944~1946) 창립한 5개의 기간 도장들이라는 주장이다. 1944년 이원국의 청도관, 1945년 황기에 의한 무덕관, 1946년 전상섭에 의한 조선 연무관(한국전쟁 때 지도관으로 개명), 1946년 윤병인에 의한 YMCA 권법부(한국전쟁 직후 창무관으로 개명), 1946년 노병직에 의해 창설된 송무관이 이른바 태권도 여명기의 5개 도장이고 태권도 1세대 원로들이다.

이들 기간 도장은 한국 무도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최초로 군사 조직도 교육기관도 아닌 일개의 민간인에 의해 설립된 사설 도장에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무도 수련이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둘째는 '태권도'라는 명칭이 생겨나고 기술체계가 완비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들 기간도장에서는 자체 심사과정을 거쳐 '급중'과 '단중'을 발급하는 조직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셋째, 이들 기간도장의 창설자들은 초기에 자신의 무도를 '당수도' '공수도' '권법' '

화수도' 등의 이름으로 지도해 왔으나 이후에 태권도라는 통합명칭 제정과 협회 설립 및 기술체계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이들 사범 중 황기는 상고시대 때부터 우리민족 무예로써 수박도(手搏道)가 있었는데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를 역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며(수박도대감<sup>4</sup>, 1970, p. 47)[20] 자신의 무도를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는 수박도로 개칭하여 태권도와 다른 무도 형태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보면, 최초 기간도장들은 근대 한국 태권도사의 시작이고 핵심인 것은 분명하나, 유일하고 결정적인 태권도의 기원설로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 다. 가라테 유입설

가라테 유입설은 1922년 후나시고 기짚<sup>5</sup>에 의해 일본 본토에 전파되기 시작한 당수도(가라테)가 한국 태권도의 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 태권도 형성에 결정적 기여를 한 기간도장의 관장들과 태권도라는 명칭을 제정한 최홍희 등이 일본에서 가라테를 배워 해방 전후 국내로 들어와 도장을 개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가라테 유입설은 제1세대 태권도 지도자들(1944년부터 1956년까지 도장을 개설한 기간 도장 사범)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한 태권도협회에서는 민족 무예의 전통성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비켜가고 있다. 현대에 들어와 양진방(1986)[11], 김용옥(1990), 강경화(2005), 송형석(2005)[10] 등이 대체적으로 사실에 기초한 역사인식 접근에서 가라테 유입설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송형석(2005, p. 215)도 태권도의 출발점은 오직 일본에서 건너온 가라테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날 태권도는 역사적 정통성 확보와 가라테와 비교하여 기술적인 고유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근대 태권도 형성에 있어 가라테 유입은 분명 지울 수 없는 뚜렷한 과정으로 질곡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때 유입된 당수가 근대 태권도의 기원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단편적 사실주의의 오류가 너무 커 보인다. 한 민족의 문화는 흥망 성쇠를 거듭하면서 변화되고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된다. 한반도에 존재한 무예도 36년간 식민 통치의 문화적 단절 속에서 일본의 근대식 무도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시대와 격변의 혼란기를 거쳐 일본 가라테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현대 태권도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의 가라테는 1940년 이전에 통합된 이념에 따라 일체화된 전통과 자기 정체성이 없었으며, 현재에도 지도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이념이 존재하며 통합의 단계를 한번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현존하고 있다. 한국의 태권도가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는 오늘날에도 가라테는 그렇지 못한 측면

이 더 크다는 사실(이창후, 2003, p95)[13]들을 종합해 볼 때, 태권도가 가라테의 아류이고 가라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규정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 라. 전통 무예 계승설

전통 무예 계승설이란 태권도가 고구려의 선배제나 신라의 화랑들이 수련하였던 맨손무예, 고려의 수박, 조선후기의 택견 등과 같은 한반도 고유의 전통 무예를 이어받아서 형성되었다는 설이다. 초기 태권도 문헌에서는 대부분 전통무예 계승설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1972년에 발행된 태권도 교본에서는 "태권도는 조상의 슬기와 얼이 담긴 고유의 민족 무예로 고구려 각저총 벽화부터 조선시대의 무예도보통지에 이르는 역사는 국기로서 고증되는 사실이며" 라고 쓰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국기원(2006)의 태권도 교본에서도 삼국시대 고구려 '선배' 신라의 '화랑' 고려 '수박' 조선 '택견'의 역사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태권도 교본들이 역사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고유의 무술을 계승한 현대 무도로서 태권도의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1세대 지도자들은 태권도가 전통무술이라는 문화적 정통성 확보에만 관심을 두었지, 정작 민족 무예를 살피고 기술을 다듬어 태권도의 새로운 구성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창조정신 결여로 역사적·철학적 논쟁을 잉태하였다. 최홍희(1966, 1972)[17]는 자신이 창안한 창현류가 택견과 당수를 종합하여 만들었다고 하나, 그 기술체계에 있어 택견의 기본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일본 당수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충분한 반성 없이 전통무술이라고 조작해 버림으로써 원래의 전통무술이 잘못 이해되거나 새로이 부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하나는 태권도와 택견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다. 현재 국기원과 태권도협회에서는 가라테 유입설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기원에서 제작한 2006년 태권도교본을 보면, 태권도의 정통성을 택견으로부터 찾고 있고, 당수 유입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선 아예 언급을 회피하였다. 반면에 택견협회나 관계자들은 택견이야말로 고구려 선배, 신라 화랑, 고려 수박, 조선의 수백치기와 택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통성을 태권도계가 자신들의 것인 양 왜곡하고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택견의 인간문화재로서 공인된 정경화(2002, p64)는 지금껏 태권도계에서 정론으로 내세우는 역사적 근거를 택견의 이름으로 똑 같이 제시하고 있어 무척 혼란스럽다. 이 같은 태권도와 택견의 정통성 논란은 한국의 전통무예에 관심을 가지고 태권도를 연구하며 수련하고 있는 국내·외 수많은 후학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 2.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탐색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논할 때 가장 먼저 제기 되는 문제는 태권도의 기원(시원)과 관련한 것이다. 일본에 의한 식민 통치로 한국은 36년간 전통 문화가 단절되는 시련을 겪게 되고, 이 시기에 근대 태권도 형성의 1세대 지도자들이 주로 일본 유학 시절에 배운 가라테를 한국 땅에 정착시키고 토착화 하게 된다. 이는 결국 태권도가 우리 민족의 맨손 무예를 계승 발전시킨 전통무예가 아니라는 역사적·철학적 혼란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선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어떤 문화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고유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다. 즉, 태권도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무예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그 시작이 우리민족에 의해 시원되어야 우리 문화로서의 고유성이 있고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도 확보될 수 있다는 인식의 오류이다. 문화의 고유성은 시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족의 개성이나 독특성의 문제이다(조지훈, 1996, p. 275)[15]. 즉 원조가 어디이고,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창의적으로 수용하여 우리 민족의 개성과 독특함을 붙여넣어 우리가 즐기고 있다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탁석산, 2000, p. 86). 만약 시원을 고유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대부분의 인류 문명은 중국, 인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의 아류가 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정체성에 대한 현대적 정의와 탈근대적 사고를 종합하여 새로운 인식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로 거론되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Ricoeur, Paul과 영국의 사회학자 Anthony Giddens도 정체성이란 고유하고 불변하는 닫힌 체계가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하며 시간, 장소 사건에 따라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열린체계로 보고 있다.

그럼 어떤 문화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고, 한국적 문화유산이라고 판단할 것인가? 그 판단의 기준으로 탁석산(2000)은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의 3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현재성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정체성 찾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의미나 중요성을 갖는다면 우리는 그 현상을 정체성 탐구를 위한 고찰의 주 대상으로 삼아야지, 과거의 현상이 주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태권도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배우고 즐기며 사랑하는 국기(國技)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을 어디를 가든 태권도장이 없는 곳이 없고, 아파트촌에는 수개의 도장들이 경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중·고교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체력증진을 위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권도 수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젠 어떤 학교에서 전교생이 태권도를 수련하여 승단심사를 받았다는 일은 너무 흔해 미담 사례로도 소개되지 않을 정도이다. 그리

고 1950년대부터 오늘날 까지 거의 모든 군부대에서 강병육성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태권도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대중적이고 보편적 현상은 태권도가 한국인을 대표하는 민족무예로서의 정체성을 갖는데 필요한 현재성과 대중성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인 주체성은 현상을 대하는 태도와 의식을 말한다. 이는 태권도를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이 어떠한가? 하는 점과 태권도에 한국인의 의식과 태도를 아우르는 정신문화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태권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의식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단적인 예로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 한국을 가장 잘 대표하는 10대 문화 이미지를 전문가와 국민적 여론 수렴을 통해 선정하였는데, 김치 한복 등과 함께 태권도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점은 씨름, 택견, 국궁, 궁중무술 등과 같은 무예보다는 태권도가 우리 민족의 역동성과 강인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보편화된 전통무예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태권도에 한국인의 정신 문화적 성향과 기질이 얼마나 녹아 있느냐 하는 문제는 태권도에 한국인의 정신세계와 사상 및 행동양식을 대변하는 한국적 문화 이미지가 얼마나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태권도에 내재된 한국적 이미지의 정수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모든 용어가 순 우리말(한글)로 토착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신력 있는 태권도 교과서인 국기 태권도 교범(국기원, 2006)을 보면, 나란히서기, 주춤서기, 학다리서기, 섞어차기, 꺾기 등 대부분의 동작들이 모두 순수한 한글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품세의 명칭으로 태극, 고려, 금강, 태백, 평원, 십수 등 한자어 명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한국인이 천 년 이상 사용해 온 단어로써 토착어처럼 친숙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경기 용어도 '차렷' '경례' '시작' '갈려' '그만' 등과 같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둘째로는 발기술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무예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민족의 맨손 무예 특징은 손보다는 발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택견이 발을 사용하여 상투를 차는 놀이 형태의 무예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의 태권도가 가라테, 합기도, 쿵후 등과 다르게 발기술 중심의 무도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된 것도 한국인의 맨손 무예 본질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케 한다. 셋째, 청·홍색으로 구분되는 호구 색상은 한국 민족이 즐겨 사용해 온 오방색의 상징적 색감으로 한국적 이미지가 느껴진다. 이는 무도 스포츠사에서 가장 먼저 색상을 가미한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한국적 주체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품세의 구성에 담겨있는 정신세계는 태극 사상과 유교·불교·선교의 정통사상을 내면화 한 수련체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이경명, 2003, p. 113)[12] 있는데, 태극 사상과 유교, 불교, 선교는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가

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사상체계이다.

### III. 결 론

태권도는 우리 문화의 자랑스러운 세계인이 즐기는 무도 스포츠이다. 종주국으로서의 당당한 권리와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그 기원과 문화에 대한 명쾌하지 못한 정체성의 흐릿함으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라테가 1939년에 일본 본토에서 최초의 도장을 개관하여 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50, 60년대에 최영의에 의해 미국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나 태권도가 70년대부터 본격적인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80년대 들어 가라테보다 더 인기 있는 무도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현대 문명사의 동시대적인 과정으로 생각해야 하고 기원을 추구하는 협애한 국수주의 질곡에서 벗어나야 함(김용욱, 1990)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아직도 제기되고 있다(강경화, 2006). 연구자는 태권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태권도의 기원에 대해 4가지 관점에서 조명해 보았다.

각각의 관점들은 역사적 근거와 함께 논리적 비약이라는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최홍희에 의한 태권도 기원설은 태권도라는 명칭이 최홍희에 의해서 탄생했다는 분명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스스로 언급하고 있듯이, 최홍희가 배운 무예는 어디까지나 가라테이다. 만일 최홍희를 태권도의 시원으로 본다면, 태권도가 한국인의 전통무예라는 자부심을 갖기에 한계가 있고, 역사적 문화적 연속성을 보전하기도 힘들 것이다. 기간도장 중심의 기원에 대해서도 통합 과정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초기 기간도장의 관장들이 협심하여 태권도를 재창조 했다는 일관되고 보편적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즉, 동작과 기술 용어 및 품세의 유형에 있어서 기간도장 간에 상호 일치된 형태를 찾으려 했다가 보다는 자기식의 운동 양식을 끝까지 고수하였고, 가라테의 양식과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는데 머물렀다는 비난이 많다. 특히 황기는 '수박도'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무도가 한국의 전통무예의 뿌리인 '수박'을 계승한 양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가라테 유입설 또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분명한 사실이나, 오늘날의 태권도가 1940년대 후기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가라테로부터 기원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고 단편적인 역사인식 인지라 수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수 천년 동안 진행 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우리 민족의 맨손무예 역사가 너무도 유구하고 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 협회 및 문화관광부에서 정설로 내세우는 전통무예 계승설은 일제시대의 가라테 유입과 같은 역사적 진실에 대해선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를 계승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무도이자 국

기(國技)인 것만 강조한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의 역사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로 인해 택견 단체로부터는 정통성 시비를, 후학들에게는 정체성 혼란을 야기 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김부찬(2006, p255)[6]은 태권도는 우리가 발전시켜 우리 문화화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통무예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내면적인 이해관계나 행동적인 동작의 원리를 설명하거나 나타내지 못해 전통무예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태권도의 기원을 통합적 관점에서 모색하여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 태권도는 최홍희와 일제시대의 문화적 단절기에 유입된 가라테, 그리고 최초의 기간도장 지도자와 우리 민족의 전통무예가 융합되어 격동의 혼란기와 문화적 재생산 과정을 거쳐 1955년에 공식적으로 '태권'이라는 명칭이 인정되고, 1959년 '대한 태권도 협회'가 창립되어 한국인의 맨손 무예로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원의 역사를 가진 태권도가 한 민족의 전통무예로서의 정체성을 잘 간직한 무예로 진화하였는지는 현재성, 대중성, 주체성의 기준에서 논의하였다. 현재성과 대중성은 정체성 판단의 준거를 그 문화의 시작과 기원에 기초하기 보다는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상황을 중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는 언제나 흐르고 변화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주체성은 한국 고유의 의식세계와 태도양식이 태권도의 구성 체계와 행동양식에 얼마나 깊이 있게 내면화 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

첫째, 오늘날의 태권도는 그 기원에 있어 최홍희, 가라테, 최초의 기간도장, 그리고 우리 고유의 맨손무예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현대문명의 재창조물로 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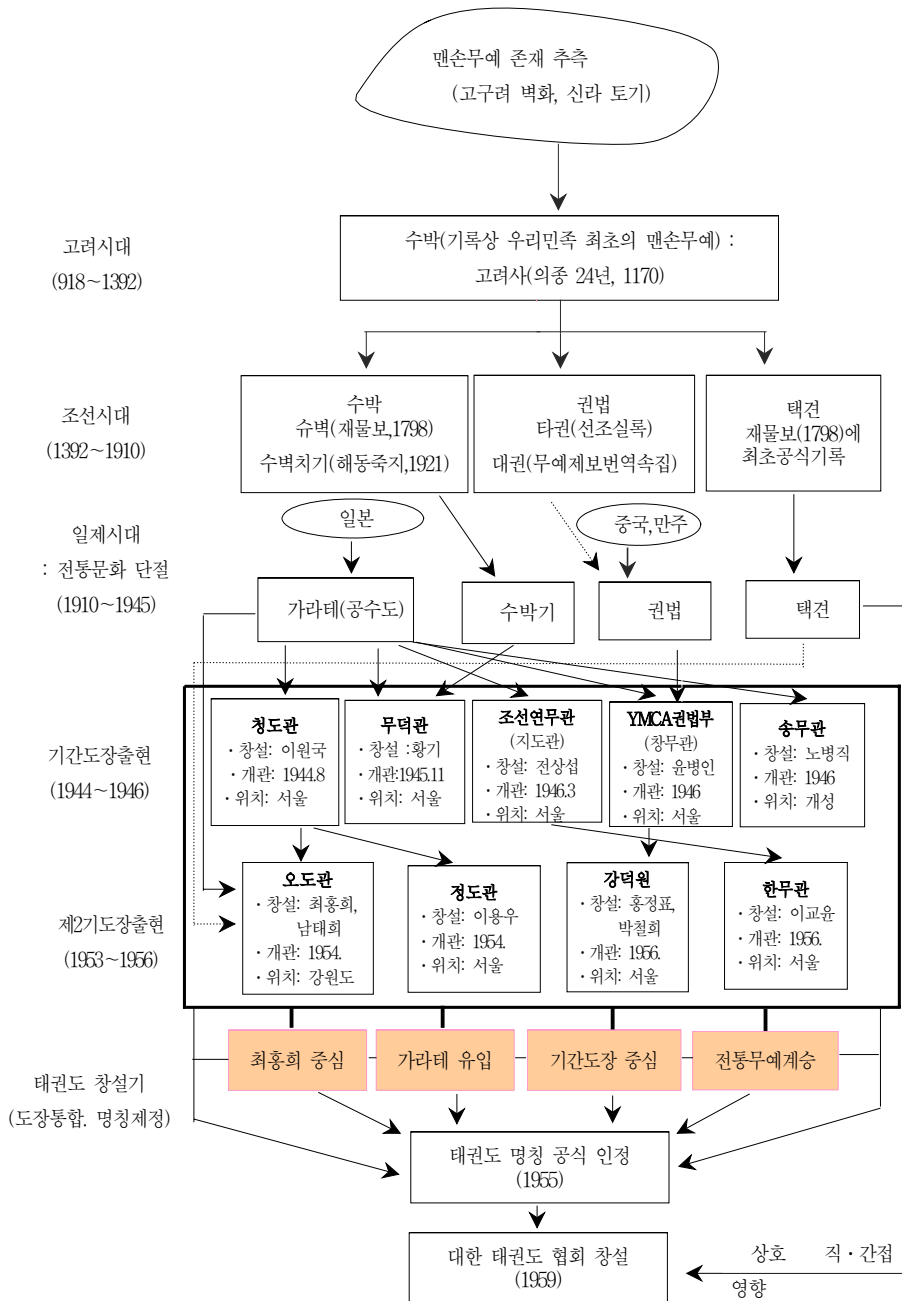
둘째, 태권도는 현재 우리만이 아닌 전세계인이 즐기는 무도 스포츠이다. 이러한 점은 문화적 정체성의 요소인 현재성과 대중성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다. 더욱이 발기술을 중시하는 우리 민족의 맨손 무예 몸짓을 본질적으로 계승 발전시켰으며, 이것은 일본의 가라테나 중국의 우수가 손기술 중심의 무예라는 것과 확연히 구별되어 그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호구나, 샷보대, 헤드기어 등에는 태극문양과 전통적 오방색상을 잘 조화시켰다. 더욱이 모든 용어를 순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2회에 걸쳐 완성한 것은 한국적 토착화의 결정체이다.

이제 태권도는 무도 스포츠 중 가장 박진감 있고, 안정성 있는 경기 운영 방식을 확보한 한국 전통무예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내포하고 있으며, 가장 세계화된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적 진화과정을 거듭하고 있다. 전통이란 고립되거나 정체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발명되는 것이다. 전통무예로서의 태권도 문화는 분절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쯤에서 우리는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노력과 함께 전세계 태권도

인을 아우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즉 세계지역성의 특징과 의미를 포착하여 그에 적합한 행위규범과 양식을 만들어가는 글로벌 무도 스포츠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삼국시대~통일신라  
(BC57~918)



▶▶ 그림 1. 태권도 기원과 형성과정

### ■ 참고 문헌 ■

- [1] 강경화. 현대 태권도의 정체성 고찰, 한국 무예의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미간행 창원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2] 국기원, 국기태권도교본, 오성출판사, 1997.
- [3] 국기원, 태권도교본, 개정판, 오성출판사, 2006.
- [4] 김경지, 동양사상을 통한 태권도 정신 정립을 위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회체육연구소 체육과학논총, 11, p27-43, 1999.
- [5] 김길평, 최근기, 택견과 태권도 역사성에 관한 비교, 한국체육학회지, 제42권, 제5호, p3-10, 2003.
- [6] 김부찬. 한국 전통무예의 체육철학, 신아출판사, 전남 전주, 2006.
- [7] 김용옥, 태권도철학의 구성원리, 통나무, 1990.
- [8] 김주훈, 김길평, 태권도와 공수도의 역사성 비교,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p51-61, 2003.
- [9]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교본(품새편), 1972.
- [10] 송형식, 태권도사 강의, 이문출판사, 안화(1919). 조선무사영웅전. 「자산 안화의 조선무사영웅전」, 한국국학진흥원, 2005.
- [11] 양진방, 해방이후 한국 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12] 이경명, 태권도의 어제와 오늘: 태권도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 어문각, 2002.
- [13] 이창후, 태권도 현대사와 새로운 논쟁들, 도서출판 상아기획, 서울, 2003.
- [14] 정경화, 택견원론, 보경문화사, 2002.
- [15] 조지훈, 한국사상의 모색, 나남출판사, 1996.
- [16]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사계절, 1997.
- [17] 최홍희, 태권도 교본, 성화문화사, 서울, 1966.
- [18] 최홍희, 태권도와 나, 제1편: 수난의 땅 나의 조국, 다음, 2000.
- [19] 탁석산, 한국의 정체성, 책세상, 2000.
- [20] 황기, 수박도(唐手)대감, 도서출판 한우리, 1970.
- [21] Draeger, D. F., & Smith, R. W.. Asian fighting arts. Tokyo, CA: Kodansha International. 1969.
- [22] Haines, B. A.. Karate history and traditions. Rutland, VT, Tokyo: Charles E. Tuttle. 1995.
- [23] Kerr, G. H.. Okinawa: The history of an island people. Rutland, VT, Tokyo: Charles E. Tuttle. 1965.
- [24] Kevin S. Y. Tan. Constructing a Martial Tradition: Rethinking a Popular History of Karate-Dou. Journal of Sport & Social Issues, Vol 28, No 2, p 169-192. 2004.
- [25] Lebra, W. Okinawa religion: Belief, ritual and social structur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66.
- [26] Nagamine, S. The essence of Okinawan karate-do. Rutland, VT, Tokyo: Charles E. Tuttle. 1976.
- [27] Robinson, J. C. Okinawa: A people and their gods, Rutland, VT, Tokyo: Charles E. Tuttle. 1969.